

‘사도들을 데리시고 따로 벳새다의 외진 곳으로 가신 주님’

사도들을 데리시고 따로
벳새다의 외진 곳으로 가신
주님

⁷분봉 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⁸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⁹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들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¹⁰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쭙니 데리시고 따로 벳새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¹¹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눅 9:7-11)

또한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를 선택받은 나라라고 믿는 까닭은 사람의 선택과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살든 주님의 자비로 이루어지며, 그러므로 사악한 자들도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과 똑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선택’(the election)이라는 게 보편적, 즉 모든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며, ‘주님의 자비’(the mercy of the Lord)라는 것은 악을 멀리하고, 대신 기꺼이 선한 삶을 살며, 그래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수, 결국 거듭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라는, 이런 사실을 전혀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AC.7051) *The reason why Christians also believe that that nation was chosen above others is that they believe that the election and salvation of man is from mercy, no matter how he lives, and thus that the wicked can be received into heaven equally with the pious and the upright; not considering that election is universal, namely, of all who live in good, and that the mercy of the Lord is toward every man who abstains from evil and is willing to*

눅9:7-11

‘사도들을 데리시고 따로 벧새다의 외진 곳으로 가신 주님’

live in good, and thus who suffers himself to be led of the Lord and to be regenerated, which is effected by the unbroken course of his life. (AC.70 51)

이 내용은 스페덴보리 저, ‘천국의 비밀’(Arcana Coelestia) 7051번 글 첫 번째 항 인용이며, 이 글은 출애굽기 4장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중,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Then she said, A bridegroom of bloods as to circumcisions.)에 관한 속뜻 주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세상에 보내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선과 진리가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

을 제어하는 거룩한 능력을 가집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서 ‘마을, 고을, 성(城)’은 종교의 교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은 다양한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제자들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지닌 재능과 애정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할 뿐입니다. 가르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은 직접 진리를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병을 고칩니다. 집을 짓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집을 짓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맡은 일을 선하게 할 때, 그 일들을 통해 선과 진리의 능력이 흘러나와 세상의 어둠을 흩어버립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거짓이 난무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진리의 다양성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

‘사도들을 데리시고 따로 벧새다의 외진 곳으로 가신 주님’

과 악, 진리와 거짓은 서로 조화를 이루거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하나가 죽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치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교회를 거쳐서만 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하면 그만큼 세상은 어둡고 혼탁해지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시대의 상황을 통해 교회의 실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마을들을 다니며 새로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7절,

7분봉 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분봉 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 하나로 유대 땅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속뜻으로 헤롯은 유대 교회를 지배하는 거짓 진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유대’는 교회를 나타내고, ‘왕’은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

다. 헤롯이 예수와 제자들의 능력을 보고 심히 당황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진리는 참된 진리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헤롯이 당황하는 것은 당시 거짓 진리 안에 있던 유대 교회가 새로운 진리 앞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된 진리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진리를 말살해버리려고 합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 있는 한 자신은 온존할 수 없다고 느낀 것이지요. 속뜻으로 ‘요한’과 ‘엘리아’,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표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은 인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적 진리이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교회들은 그때마다 주님의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어떻게 방해했을까요? 말씀을 임의로 왜곡, 거짓 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말씀의 생명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말씀에서는

‘사도들을 데리시고 따로 뱃새대의 외진 곳으로 가신 주님’

그것을 유대인들이 선지자들과 요한을 죽이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또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몸은 비록 세상의 빛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내면은 천국 빛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진리가 변질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느낍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를 찾아 타락한 교회를 떠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들과 만나도록 섭리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보고 거짓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 앞에서 그들의 거짓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입니다. 진리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를 질시하고 험담하는 일부 교회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한국 땅에 들어온 지 칠십여 년이 되었지만, 교회 수가 전국적으로 세 개밖에

안 됩니다. 가장 크다고 하는 서울교회의 출석 인원이 고작 30여명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만 하면 어느 교회에 다니든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우리 교회로 오시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각자의 자유의지에 맡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우리를 주시하고, 때로는 하는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왜 그들은 이 작은 교회를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역설적으로 이 교회의 진리가 참된 진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의 거짓들이 이 진리 앞에서 아무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진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올 것입니다. 그들의 혐오의 바탕에는 어찌면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개신교 목사의 관점에서는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도 보통 이단이 아니고 아주 고약한, 현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이 아닐까... 스베덴보리를 하게 되면, 바울을 옆으로 제껴놓아야

‘사도들을 데리시고 따로 벧새다의 외진 곳으로 가신 주님’

하는데요, (스베덴보리에 의하면, 바울 서신을 비롯, 사도들의 서신서와 구약의 많은 성경이 주님의 말씀(The Word, 주님의 아르카나가 들어 있는)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현 기독교의 십자가 복음, 은혜와 믿음, 구원의 교리는 거의 다 바울 서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볼 땐, 이게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주님 당시 헤롯이 느끼는 두려움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일당들은 주님을 보자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파괴해버렸다고 믿었던 말씀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음을 직감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자 9절, 헤롯의 말입니다.

⁹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기서 요한의 목 베임 전 상태는 말씀의 내적 의미와 말씀의 외적 의미, 즉 글자의 뜻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말씀을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헤롯에 의해 요한의 목이 베어진 상태는 말씀의 내적인 의미와 글자의 뜻이 서로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교회들이 참된 진리가 있는 교회를 핍박해 죽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부터 내적 진리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내적 진리가 없는 글자의 뜻은 진정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주님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교회들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말씀으로부터 내적 진리를 분리하고, 교인들의 거듭남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의 글자의 뜻과 내적 진리가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었습니까? 주님과 제자들의 노력으로 그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의 글자의 뜻 속에 담긴 내적 진리의 불씨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위기감을 느끼고 예수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자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짓 진리 또는 거짓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눅9:7-11

‘사도들을 데리시고 따로 벳새다의 외진 곳으로 가신 주님’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좋은 의미에서의 관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진리에 반대편에 서서 참된 진리를 파괴하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전도 여행을 보냈던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주님께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응답한다는 뜻입니다. 멀리 갔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 그대로 이행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¹⁰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쭙니 데리시고 따로 벳새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벳새다라는 고을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글 성경 번역이고, 영어 성경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벳새다라는 고을

외진 곳으로 은밀하게 떠나셨다 (*He departed by Himself to a deserted place of the city called Bethsaida.*)고 되어 있습니다. 벳새다와 고라신은 모두 갈릴리 북부 해안 근처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초기에 그 두 도시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벳새다’는 속뜻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주받은 땅을 의미합니다. 기록에 보면, 벳새다는 본래 비옥한 평야 지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벳새다라는 고을(*the city called Bethsaida*)의 외진 곳(*a deserted place*)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고을, 성(城)은 교리라는 뜻도 있지만 특정 종파의 신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진 곳’은 진리

‘사도들을 데리시고 따로 벧새다의 외진 곳으로 가신 주님’

와 선이 전혀 없는 곳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보면, 주님께서 벧새다의 외진 곳으로 가신 것은, 선이나 진리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종파의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시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시는 것은 물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일 뜻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사도들을 데리시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왜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로 가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진리를 모르는 편이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알면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행여 그들이 진리를 모독할까 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게 아주 은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악하다 하여 드러내어 진리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가르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주님의 제자들의 진실하고 따뜻한 언행을 통해 아주 은밀하게 그들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그것이 벧새다의 외진 곳으로 제자들

을 데리고 가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벧새다로 가실 때 그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11절,

11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말씀에서 ‘무리’는 영어로는 people인데, people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진리 자체이신 주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기꺼이 함께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서로 통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그들 안으로 천국의 복음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병이 고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눅9:7-11

‘사도들을 데리시고 따로 벳새다의 외진 곳으로 가신 주님’

는 주님은 당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할 때 점점 더 어려운 사명을 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사명이란 어떤 것입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한테까지도 가서 그들을 교화(敎化)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너무 험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교회와 교파들 중에는 새 교회의 진리를 파괴하고 말살하려는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는 성전을 짓는데 삼 년이나 걸렸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성전 건축을 지연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10:16)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선과 진리를 가지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진리와 선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적 진리로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그러한 은혜가 서울 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마17:12)

아멘

원본

2019-04-07(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